

인문대학 철학전공 졸업논문

# 심리적 연속성이 도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철학전공

진호연

2025년 11월 11일

## 목차

- I. 서론
- II. 자기 동일성과 뇌 반구 분열 사고 실험
- III. 동일성에서 생존으로
- IV. 관계 R: 심리적 연결성과 심리적 연속성
- V. 도덕적 책임과 심리적 연결성: 독립운동가 사례
- VI. 관계 R에 대한 반례: 미키16-17 사례
- VII. 결론

## 요약문

본 논문은 데렉 파핏(Derek Parfit)의 “관계 R (Relation R)”이론을 영화 『미키 17』의 사례를 통해 비판적으로 탐구한다. 파핏은 뇌 분리 사고 실험을 통해 엄격한 수적 동일성보다 기억, 성격 등의 “심리적 연결성”과 심리적 연결이 중첩되어 발생하는 “심리적 연속성”이 생존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과거의 자신과 심리적 연결이 약화되면 도덕적 책임 또한 감소한다.

그러나 미키 사례를 들어 이 이론을 도덕적 책임의 문제에 적용했을 때 부딪히는 한계를 제시한다. 살인자 미키 16이 죽고 그의 기억을 완벽히 이어받은 미키 17이 생성되었을 때, 파핏의 이론상 미키 17은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이는 행위의 물리적 주체와 처벌의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의 직관과 충돌한다. 따라서 심리적 연속성만으로는 도덕적 책임을 온전히 설명하기엔 부족함을 논증한다.

## I. 서론

2025년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SF 영화 『미키 17』의 주인공인 미키(로버트 패틴슨 역)는 익스펜더블(Expendable)이라는 특별한 직업을 가진 인물이다. 익스펜더블이란, 일반적인 사람이 수행할 수 없는 일을 위한 특수 직업으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다 재기불능 상태가 되거나 사망할 시, 신체는 소각되고 그의 기억과 인격을 고스란히 담은 새로운 복제 인간이 휴먼 프린팅이라는 기술을 통해 재출력(reprinting)된다. 영화 속에서 미키의 기억은 특수한 저장 장치와 항상 동기화 되어 있으며, 신체가 출력되는 방식은 기존에 저장해 둔 생체 상태 그대로 프린터라는 기계에서 정제된 유기물을 새롭게 조직하여 출력된다. 출력이 완료되면 저장 장치에 동기화 되어 있던 기억을 새로운 신체에 이식하여 재출력을 완성한다. 다시 말해, 미키 16이 사망하면 그의 기억과 성격 등의 심리적 요소를 그대로 이식한 미키 17이 재출력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키 16이 죄를 짓고 바로 사망한 직후 미키 16의 신체가 완전히 소각되고, 동일한 기억과 몸을 지닌 미키 17이 생성되었을 때, 미키 17이 여전히 자신은 미키 16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믿고 있다면, 미키 17은 미키 16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미키 16이 미키 17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면 미키 17은 죄에 대한 책임이 없을 것이고, 반대로 미키 16이 미키 17과 같은 사람이라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있어 데렉 파핏(Derek Parfit)은 미키 16과 미키 17이 동일한 사람이지를 묻는 자기 동일성(personal identity)에 관한 물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본 논문은 파핏의 뇌 분리(fission) 사고 실험을 바탕으로, 그가 어떠한 이유에서 자기 동일성(personal identity)에 관한 물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관계 R(Relation R)을 정리한 후, 관계 R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심리적 연결성(psychological connectedness)”과 “심리적 연속성(psychological continuity)”의 개념을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심리적 연결성은 기억이나 성격 등 심리적 요소들의 직접적인 연결을 의미한다. 이러한 심리적 연결이 중첩되어 이어지면 심리적 연속성이 발생한다. 미키 사례에서 파핏의 개념을 따른다면 미키 16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미키 17이 져야 함을 논증한 뒤, 러시아 귀족 사례와 영화 『미키17』의 사례(미키 사례)를 통해 관계 R만을 사용하여 도덕적 책임을 평가하였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논하고자 한다.

## II. 자기 동일성과 뇌 반구 분열 사고 실험

칼리 밀러(Karley Miller)는 희귀 신경계 질환인 스테지-웨버 증후군을 앓았던 인물이다. 태어날 때부터 스테지-웨버 증후군을 진단받은 그는 뇌의 혈관 기형으로 인해 뇌성마비와 심각한 간질, 그리고 시각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다. 밀러의 어린 시절은 하루에도 수차례씩 발생하는 발작과 두통으로 점철되었다. 특히 17세에는 9시간 30분 동안 지속되는 대발작을 겪는

등, 그의 삶은 일상적인 활동조차 어려운 상태였다.<sup>1</sup>

발작을 멈추기 위해, 밀러는 뇌의 절반을 제거하는 대뇌 반구 절제술(hemispherectomy)을 받기로 결심했다. 이는 염증이 발생한 뇌의 절반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이다. 이 수술은 뇌의 손상된 오른쪽 반구를 제거하여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수술 이후 회복을 통해 밀러는 제거된 우뇌의 능력을 회복하였으며, 현재 그는 전문 사진작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sup>2</sup>

크리스티나 샌하우스(Christina Santhouse)는 희귀 난치성 신경 질환인 라스무센 뇌염(Rasmussen's Encephalitis)을 극복한 인물이다. 라스무센 뇌염은 대뇌의 한쪽 반구에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해 점차 뇌세포를 파괴하는 질환으로, 심각하고 잦은 발작과 함께 신체 편측 마비 및 인지 기능 저하 등을 유발한다.

샌하우스의 사례는 7세 무렵, 하루에 많게는 150여 차례에 달하는 통제 불가능한 발작이 시작되면서 알려졌다. 약물 치료가 효과를 보이지 않자, 의료진은 대뇌 반구 절제술을 제안했다. 결국 그는 8세였던 1996년, 우뇌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sup>3</sup>

수술 후 샌하우스는 좌반신 마비와 왼쪽 시야의 영구적인 손실이라는 후유증을 얻었다. 걷기, 옷 입기 등 기본적인 일상 활동조차 다시 배워야 했다. 그러나 남아있는 좌뇌가 제거된 우뇌의 기능을 상당 부분 흡수하고 재구성하는 뇌 재조직화 과정을 겪으며 점차 회복해 나갔다. 그는 보조 장치에 의지해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꾸준한 재활과 노력 끝에 고등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했으며 볼링팀 주장으로도 활동했다.

더 나아가 샌하우스는 대학에 진학해 언어병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는 대뇌 반구 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학문적 성취로 평가된다. 이후 그는 언어병리학자로 활동하며 결혼해 가정을 꾸리는 등 의학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삶을 살고 있다. 그의 사례는 뇌가 손상 이후에도 스스로 신경 회로를 재편성하여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다.<sup>4</sup>

---

<sup>1</sup> Zach Sutton, "The Act of Giving - Working w/ The HeART Project & Karley Miller," *Zach Sutton Photography*, last modified May 23, 2016, <https://zsuttonphoto.com/working-heart-project-karley-miller/>.

<sup>2</sup> Yahoo News Australia, "Brave teen risks life with operation to remove half her brain in hope it will end daily seizures," last modified February 7, 2016, <https://au.news.yahoo.com/brave-teen-risks-life-operation-210913130.html>.

<sup>3</sup> Jo Ciavaglia, "For Brain Surgery Patient, Greatest Challenge Is Motherhood," AP News, last modified May 18, 2019, <https://apnews.com/general-news-d81263a495714dce90c15f1a13d9dafd>.

<sup>4</sup> Alynda Wheat, "Woman Who Had Half Her Brain Removed Defies the Odds, Gets a Master's Degree," *People Magazine*, last modified February 16, 2016, <https://people.com/celebrity/woman-who-had-half-her-brain-removed-defies-the-odds-gets-a-masters-degree/>.

이렇듯 뇌 손상으로 인해 뇌의 절반이 손실되었음에도 뇌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을 진행하려 한다.

철수가 뇌를 제외한 다른 부분이 모두 자신과 동일한 두 구의 신체를 복제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복제된 신체들은 뇌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기계장치를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뇌를 이식받는다면 기계장치 없이도 온전히 살 수 있는 상태이다. 이 상황에서 의사들은 철수의 좌뇌와 우뇌를 분리하여 각각의 신체에 옮긴 뒤, 철수의 좌뇌만 이식한 신체를 ‘좌철수’, 우뇌만 이식한 신체는 ‘우철수’라고 이름 짓고, 충분히 발전한 과학기술을 통해 좌철수와 우철수의 뇌가 철수의 뇌와 동일하게 작용하도록 회복시켰다. 회복이 끝난 좌철수와 우철수 둘 다 철수가 지닌 기억과 성격 같은 모든 심리적 특성을 동일하게 가진다.<sup>5</sup>

이 사고 실험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은 네 가지로 압축된다.

- (1) 철수는 좌철수와 우철수 둘 다와 동일하다.
- (2) 철수는 좌철수와는 동일하지만 우철수와는 동일하지 않다.
- (3) 철수는 우철수와는 동일하지만 좌철수와는 동일하지 않다.
- (4) 철수는 좌철수와 우철수 둘 다와 동일하지 않다.

(1)은 이행성의 원리( $a=b$ 이고  $b=c$ 이면  $a=c$ 이다)를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철수를  $a$ , 좌철수를  $b$ , 우철수를  $c$ 라고 하면,  $b$ 는  $c$ 와 같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데  $b$ 가  $a$ 와 같고  $a$ 가  $c$ 와 같다면  $b$ 는  $c$ 와 같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모순되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

(2)와 (3) 또한 논리적 오류가 발생한다. 좌철수와 우철수는 동일한 과정을 통해 철수와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둘 중 어느 한쪽이 철수와 동일하다면 다른 한쪽도 철수와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2)와 (3)은 둘 다 결론으로 삼을 수 없다.

(4)의 경우, 좌철수와 우철수 모두 철수와 동일하지 않다면, 철수는 죽은 것과 다름없다. 왜냐하면 철수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그가 더이상 살아 있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뇌 손실 환자들의 경우, 뇌의 절반이 손실되었음에도 회복 이후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좌철수와 우철수 모두 각자의 삶을 영위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또한 철수의 뇌를 이식한 좌철수와 우철수가 살아서 존재하므로 철수라는 존재가 소멸했다는 것 역시 우리의 직관에 위배된다.

결론적으로 위 사고실험에서 도출해 낼 수 있는 네 가지 답변 중 어떠한 답변도 선택할 수 없으니 우리는 역설에 빠지게 된다. 파핏은 이 사례에서 자기 동일성 개념 때문에 역설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파핏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기 동일성은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파핏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

<sup>5</sup> 위 사례는 파핏의 ‘분열(Division)’ 사고 실험을 필자가 각색한 것으로 원문은 다음을 참조하라.

Derek Parfit, *Reasons and Persons*, Oxford: Clarendon Press, 1984, pp. 254-255.

### Ⅲ. ‘동일성’에서 ‘생존’으로

먼저 파핏은 (4)에 대하여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쪽 반구 또한 성공적으로 이식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생존하지 못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중의 성공이 실패가 될 수 있는 가?"라고 말하며 문제를 제기하였다.<sup>6</sup> 파핏이 말하는 이중 성공이란 두 개 이상의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된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설 A에 대한 두 번의 실험으로 결과1 그리고 결과2가 나왔고, 결과1과 결과2 모두 성공적으로 가설 A를 뒷받침한다면, 가설 A는 이중 성공을 거둔 것이다.

다시 (4)의 경우로 돌아와서, 만약 철수의 좌뇌와 우뇌 중 하나만 이식에 성공했다면, 그 결과로 나온 개인을 철수라고 여길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뇌 모두 성공적으로 이식한 좌철수와 우철수가 철수와 동일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두 개의 성공을 완전한 실패로 여기는, 즉 철수라는 존재가 여전히 실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망했다고 여기는 오류이다.

파핏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초점을 “동일성(identity)”에서 “생존(survival)”으로 옮긴다. 파핏이 말하는 동일성이란 수적 동일성으로 이는 “x와 y는 정확히 하나이며 동일한 존재이다”라는 논리적 관계이다. 이러한 동일성은 일대일 관계 그리고 전부이거나 전무(All-or-Nothing)인 관계라는 특징을 가진다. 일대일 관계란, 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과만 동일할 수 있으며, 만약 내가 미래의 두 사람과 동일하다면, 그 두 사람은 서로 동일해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전부이거나 전무인 관계의 의미는 점진적인 동일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두 존재는 완전히 동일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라는 말이다. 즉, 동일성의 문제에 있어서 절반 정도만 동일하거나 99% 정도 동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철수는 두 결과인(좌철수와 우철수)과 수적으로 동일할 수 없다. 그러나 철수의 심리적 삶은 두 갈래로 나뉘어 지속되고 있으므로 그가 생존하지 못했다고 여기기는 어렵다. 결국 파핏의 주장은 “나는 생존했지만 나의 동일성은 보존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원래의 사람과 그 결과로 나타난 각 사람 간의 관계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모든 것—즉, 평범한 생존 사례에서 중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이 둘로 생존할 수 있다는 의미를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sup>7</sup>

결론적으로 파핏이 뇌 분할 사고 실험을 통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위 사고 실험에서 본질적인 것은 “내가 유일한 한 사람으로 계속 존재하는가?” 라는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정신적 삶이 계속 이어지는가?” 라는 생존의 문제이다. 따라서 뇌 분할 후의 좌철수와 우철수는 철수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철수는 좌철수와 우철수를 통해 심리적 연속성을 지니며 생존한 것이다.

<sup>6</sup> Derek Parfit, *Personal Identity*, The Philosophical Review 80, no. 1, 1971, p. 5.

<sup>7</sup> Ibid., p. 10.

#### IV. 관계 R: ‘심리적 연결성’과 ‘심리적 연속성’

그렇다면 생존은 동일성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파팿은 “생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what matters)’”을 ‘관계 R’이라고 명명한다. 관계 R은 다음과 같이 심리적 연결성(Psychological connectedness)과 심리적 연속성(Psychological continuity)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먼저, 심리적 연결성이란 기억, 의도, 신념, 욕구, 성격 등 개인의 정신 상태들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적 연결망을 의미한다.

“직접적인 기억 외에도, 여러 다른 종류의 직접적인 심리적 연결이 있다. 그러한 연결 중 하나는 어떤 의도와 그 의도가 실행되는 나중의 행위 사이에 성립하는 것이다. 다른 직접적 연결들은 신념, 욕구, 또는 다른 심리적 특징이 계속해서 유지될 때 성립하는 것들이다.”<sup>8</sup>

예를 들어 뇌 반구 분열 사고 실험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좌철수와 우철수에게 숫자를 부여한다고 가정해보자. 회복이 끝난 시점에 숫자 1을 부여하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 다음 숫자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회복이 끝난 시점의 좌철수는 좌철수1이 되고 그 다음날은 좌철수2, 또 하루가 지난 시점에는 좌철수3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좌철수1은 좌철수2와 강한 심리적 연결성을 가지지만, 좌철수30과는 상대적으로 약한 심리적 연결성을 지닌다. 좌철수1과 좌철수2 사이에 발생한 시간의 흐름보다 좌철수1과 좌철수30 사이에 발생한 시간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좌철수1과 좌철수30의 심리적 연결성은 약화되는 것이다. 이처럼 심리적 연결성은 각 정신 상태들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요구하며, 전부이거나 전무인 관계인 동일성과 달리, 정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정도의 문제(matter of degrees)”이다.

심리적 연속성은 심리적 연결성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직접적이고 강한 심리적 연결들이 중첩되어 발생하는 연쇄(overlapping chains of strong connectedness)를 의미한다. 앞선 좌철수1과 좌철수30의 예시에서, 시간적 간격으로 인해 이 둘의 직접적인 심리적 연결성은 약하다. 그러나 짧은 기간을 놓고 보면 각자 좌철수2 그리고 좌철수29와는 강한 심리적 연결성을 지닌다. 좌철수29는 좌철수28과, 좌철수28은 좌철수27과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과정을 반복하여 연결성이 중첩되면 좌철수30은 좌철수1에 도달하게 된다. 이처럼 겹쳐지는 강한 연결성 전체가 심리적 연속성을 구성한다. 따라서 좌철수1과 좌철수30은 비록 두 시점 간 직접적인 심리적 연결은 약할지라도, 끊기지 않는 연결성의 연쇄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연속된 존재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심리적 연결성과 심리적 연속성 둘 중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가 가능한가? 먼저 파팿은 심리적 연속성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를 심리적 연결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심리적

---

<sup>8</sup> Derek Parfit, *Reasons and Persons*, p. 205.

연결성이 강할 때 심리적 연속성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다음은 심리적 연결성과 심리적 연속성의 관계에 대한 파팻의 설명이다.

“(1) 심리적 연속성이 있다는 것은, 강한 연결성의 중첩된 사슬이 있을 때 그리고 오직 그 때뿐이다. 오늘의 X가 과거의 Y와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은, (2) X가 Y와 심리적으로 연속적이고, (3) 이 연속성이 올바른 종류의 원인을 가지며, (4) '가지치기(branching)'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오직 그 때뿐이다. (5) 시간에 걸친 개인적 정체성은 바로 (2)에서 (4)와 같은 사실들이 성립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sup>9</sup>

이 정의에 따르면, 심리적 연속성은 “강한 연결성”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강한 심리적 연결성이 존재하는데 심리적 연속성이 없는 상황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강한 연결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연속성을 구성하는 기본 요건을 충족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밧줄을 예로 들어본다면, 밧줄의 각 섬유 가닥은 심리적 연결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섬유 가닥들이 길게 꼬여서 하나의 밧줄 전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심리적 연속성이다. 섬유 가닥이 많이 겹쳐져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밧줄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밧줄의 강력한 한 부분은 존재하지만, 밧줄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심리적 연결성은 강한데 심리적 연속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반대로 심리적 연속성은 강한데 심리적 연결성이 약한 경우는 가능한가? 예를 들어, 80세의 나와 10세의 나를 생각해 본다면, 80세의 나는 10세의 나와 직접적인 심리적 연결성이 거의 없다. 10세 때 가졌던 구체적인 기억, 신념, 욕구, 성격의 대부분은 80세가 되었을 때에는 사라졌거나 변했을 것이다. 따라서 두 시점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성은 매우 약하거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80세의 나와 10세의 나 사이에는 강한 심리적 연속성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80세의 나는 79세의 나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79세의 나는 78세의 나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강한 연결성의 연쇄가 10세의 나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 예시가 보여주듯, 두 존재 사이의 직접적인 심리적 연결은 거의 없을지라도, 그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 단계의 강한 연결들이 존재함으로써 전체적인 연속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심리적 연속성은 심리적 연결성이 누적된 결과이다. 따라서 심리적 연결성이 아예 부재한 상태에서 심리적 연속성만이 강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개념의 정의에 위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심리적 연결성이 직접적이거나 강하지 않더라도, 끊어지지 않고 중첩되어 이어져 있다면, 두 시점 사이에 심리적 연속성이 발생할 수 있다.

파팻은 여기에 관계 R이 “올바른 종류의 원인(the right kind of cause)”에 의해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인다. 이는 정상적인 기억 과정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과 관계를 통해 심리적 상태가 지속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우연의 일치나 외부의 조작에 의한 가짜 기억 등은 배제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나와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이 우연히 나와 똑같은

---

<sup>9</sup> Ibid., p. 207.

기억을 갖게 되는 경우, 그를 나와 동일 인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심리적 연속성은 반드시 올바른 종류의 원인에 의해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은 신뢰할 수 없는 방식의 인과 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것이다. 파팿은 올바른 종류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심리적 기준에는 세 가지 관점(three versions of Psychological criterion)이 있다. 이들은 무엇이 올바른 종류의 원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르다. 협소한 관점(Narrow version)에 따르면, 이것은 정상적인 원인이어야만 한다. 넓은 관점(Wide version)에 따르면, 이것은 신뢰할 수 있는 원인이면 된다. 가장 넓은 관점(Widest version)에 따르면, 그 원인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sup>10</sup>

첫째는 협소한 관점(the Narrow View)으로, 심리적 연속성은 정상적인 원인(the normal cause)에 의해서만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원인이란, 우리의 뇌가 물리적으로 계속 존재하면서 기억과 같은 심리적 상태를 만들어내는 일반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뇌의 “물리적 연속성”만이 관계 R에 대한 올바른 종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보다는 조금 완화된 기준으로 넓은 관점(the Wide View)이 있다. 넓은 관점에 따르면 심리적 연속성을 유발하는 원인이 정상적일 필요는 없지만, 신뢰할 수 있는(reliable) 것이면 된다. 파팿은 이 관점에서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더라도, 즉 물리적 연속성이 유지되지 못하더라도, 그 결과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다면 올바른 종류의 원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파팿이 제시한 마지막 관점은 가장 넓은 관점(the Widest View)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원인이 무엇이든, 심리적 연속성을 유발했다면 “그 어떤 원인(any cause)”이라도 상관없다.

파팿은 이 세 가지 관점 중 어느 하나를 최종적인 정답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논의를 통해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다. 자기 동일성은 흑백논리로 결정되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or-nothing)”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의 생존이나 미래에 관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엄격한 의미의 동일성이 아니라 관계 R, 즉 심리적 연속성 및 심리적 연결성 그 자체라는 것이다.<sup>11</sup>

올바른 종류의 원인에 대한 기준이 협소한 관점에서 가장 넓은 관점까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자기 동일성 개념이 얼마나 불분명하고 유연한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파팿은 “나는 살아남을 것인가?”와 같은 질문은 종종 답이 없는 공허한 질문(empty question)이 될 수 있으며, 대신 “나의 심리적 연속성은 어느 정도로 이어질 것인가?”를 묻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주장한다.

---

<sup>10</sup> Ibid., p. 207.

<sup>11</sup> Ibid., p. 262.

## V. 도덕적 책임과 심리적 연결성: 독립운동가 사례

전통적으로 도덕적 책임은 행위자와 책임을 묻는 대상 사이의 엄격한 수적 동일성을 전제로 한다. 비환원론자(Non-Reductionist)들은 파팿의 이론과 달리 자기 동일성 개념이 단순히 물리적 관계나 심리적 연결만으로 환원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음은 파팿의 정리한 비환원론자들의 주장이다.

"많은 비환원론자들은 우리가 분리되어 존재하는 실체라고 믿는다. 이 관점에 따르면, 시간 간에 걸친 자기 동일성은 단지 물리적 그리고/또는 심리적 연속성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추가적인 사실(further fact)을 포함한다. 사람은 그의 뇌와 몸에 구별되는, 그리고 그의 경험들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실체이다. 이 관점의 가장 잘 알려진 경우에 따르면, 사람은 순전히 정신적인 실체: 데카르트적 순수 자아 또는 영적 실체이다. ...

또 다른 비환원론적 관점이 있다. 이 관점은 우리가 우리의 뇌와 몸에 구별되는, 그리고 우리의 경험들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실체라는 것을 부정한다. 그러나 이 관점은, 비록 우리가 분리되어 존재하는 실체는 아닐지라도, 자기 동일성은 추가적인 사실이며, 이는 단지 물리적 그리고/또는 심리적 연속성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sup>12</sup>

파팿의 정리에 따르면 비환원적 관점에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첫 번째 견해는 인간을 분리될 수 있는 실체로 간주하며, 자기 동일성이 물리적 실체와 정신적/영적 실체의 결합이라고 설명한다. 이들은 인간이 물리적인 실체뿐만 아니라 영혼이나 정신 같은 추가적인 사실을 통해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견해는 앞서 설명한 견해와 반대로 인간은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와 뇌, 심리적 요인 등 모든 것이 결합되어서 인간을 구성한다. 또한 이들에게 자기 동일성은 인간을 구성하는 추가적인 사실 중 하나이며, 자기 동일성 역시 물리적 연속성이나 심리적 연속성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비환원주의자들의 두 가지 견해 모두 심리적 요인만으로 자기 동일성이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쉽게 말해, 심리적 연결성과 심리적 연속성은 자기 동일성에 대한 필요 조건일 수 있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파팿에게 자기 동일성은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파팿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생존이며,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가 제시한 관계 R, 곧 심리적 연결성과 심리적 연속성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 심리적 연결성과 심리적 연속성은 비환원론자들의 주장처럼 정신이나 영혼 같이 자아 정체성을 구성하는 추가적 사실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에 대한 기준이자 전부이다. 따라서 파팿에게 과거의 행위자와 현재의 책임 주체 사이의 연결고리는 심리적 연결성과 연속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파팿은 자신의 이론을 도덕적 책임에 적용하기 위해 러시아 귀족 사례(Russian Nobleman

---

<sup>12</sup> Ibid., p. 210.

case)라는 사고 실험을 진행한다.<sup>13</sup> 다음은 러시아 귀족 사례를 대한민국의 근대사에 맞춰 각색한 내용이다.

\*\*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난 젊은이는 일본 유학 중 조국의 현실에 눈을 뜨고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모든 사유재산이 개인의 안락이 아닌 민족의 해방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자신의 토지와 재산을 처분하여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내기로 마음먹는다. 하지만 그는 오랜 시간이 흐르면 고된 투쟁 속에서 자신의 신념이 흔들릴 것을 염려했다. 이에 아내에게 자신의 결심이 변하더라도, 나라를 되찾기 전까지는 재산을 되돌려 달라는 요청을 절대로 들어주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약조를 받아낸다.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 "만약 훗날 내가 이 뜻을 잃고 안위를 탐하게 된다면, 그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닌 '변절자'라고 여겨주시오. 당신의 지아비는 조국의 독립을 맹세한 지금의 나이지, 훗날 일신의 영달에 눈이 멀어 변절한 자가 아님을 기억해주시오."

세월이 흘러, 끝이 보이지 않는 핍박과 동지들의 희생에 지친 그는 결국 독립에 대한 희망을 잃고 만다. 그는 아내에게 이제라도 남은 재산으로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고 과거의 약속을 거두어 달라고 애원한다. 이 지점에서 아내는 남편의 현재와 과거의 약속, 그리고 민족의 현실 앞에서 도덕적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

파팿의 관점에서 독립운동가의 민족해방의지는 그의 젊은 시절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심리적 연결성이었다. 시간이 지나 그 의지가 사라졌다는 것은 젊은 독립운동가와 중년 독립운동가 사이의 심리적 연속성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젊은 독립운동가와 중년 독립운동가는 기억과 경험을 공유하지만 신념, 가치관, 욕망 같은 핵심적인 심리적 특성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사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파팿은 자기 동일성을 그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사이에 존재하는 심리적 연결들의 총합일 뿐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심리적 연결이 매우 약한 젊은 독립운동가와 중년 독립운동가의 관계는 타인과 다를 바 없다.

독립운동가가 아내에게 훗날의 자신을 변절자로 간주해달라고 한 요청은 바로 이러한 심리적 연결성(관계 R)의 단절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진술이다. 파팿은 이처럼 독립운동가의 행동과 가치관의 극적인 변화는 인격의 연속성이 "정도"의 문제임을 보여주며 이러한 정도의 변화가 도덕적 의무의 근거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파팿이 보기에 젊은 독립운동가의 약속은 타인과 다를 바 없는 중년 독립운동가를 구속할 수 없으며, 이는 중년 독립운동가에게 젊은 독립운동가의 약속을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 또한 없다는 것이다. 이는 약속과 책임 같은 도덕적 개념이 시간이 지나도 불변하는 자아나 영혼에 귀속되는 것이 아

---

<sup>13</sup> 파팿의 '러시아 귀족 사례' 원문은 다음을 참조하라.

Ibid., p. 327.

니라, 심리적으로 연결된 “특정 시점의 자아”에 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파팿의 논리에 따르면, 아내의 약속은 젊은 독립운동가, 즉 약속을 한 과거의 인격 단계에게 향한 것이었다. 약속 철회를 요구하는 현재의 중년 독립운동가는 그 젊은 독립운동가와 심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그는 약속을 철회할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파팿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낸다.

“그녀는 지금 남편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자신이 사랑하고 결혼했던 젊은 남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믿을 수 있다. 그리고 그녀는 현재 남편의 말이 이 젊은 남자에 대한 자신의 불충을 면하게 해줄 수 없다고 간주할 수 있다.”<sup>14</sup>

파팿은 개인의 정체성이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심리적 상태들의 연속체임을 보임으로써, 약속뿐만 아니라, 계약, 보상, 처벌과 같이 시간을 가로지르는 도덕적 의무와 권리의 전통적인 기반을 재검토하게 만든다.

파팿은 “만약 (심리적) 연결성이 크게 감소했다면, 현재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은 훨씬 적은 처벌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과거 특정 시점의 나와 현재의 나는 심리적 연결성의 정도에 따라 타인으로도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sup>15</sup> 이 주장에 따르면, 만약 내 미래의 자아가 현재의 나와 약한 심리적 연결성을 가진다면, 나의 희생을 통해 타인을 돕는 것이나 나의 희생을 통해 미래의 나를 돕는 것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줄어든다. 관계 R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현재의 나와 심리적 연결성이 매우 약한 미래의 자아는 타인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팿은 자신의 이론을 수용한다면, 관계 R의 강도가 도덕적 고려의 무게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기 중심적 윤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효과를 낳는다고 보았다.

## VI. 관계 R에 대한 반례: 미키 사례

그러나 파팿의 주장은 우리의 일반적인 직관과 명백히 충돌한다. 심리적 연결성이 약하더라도 독립운동가는 물리적으로 여전히 동일한 사람이므로 약속 이행의 의무를 스스로 질 책임이 있으며, 젊은 독립운동가와 중년 독립운동가 사이에 기억과 경험이라는 심리적 연결이 미약하게나마 존재하므로 심리적 연속성이 발생함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독립운동가의 이상과 신념이 달라진 것처럼 아내의 이상과 신념이 변했다면, 젊은 아내와 중년 아내 역시 다른 존재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젊은 아내가 한 약속을 중년 아내가 이행할 도덕적 의무가 없음을 보여준다.

극단적인 경우, 심리적 특성의 변화가 매우 짧은 시간(일주일 또는 하루)만에 발생했다면, 기억과 신념 중 어느 것이 심리적 연속성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지 따지는 것은 까다롭기 때문

---

<sup>14</sup> Ibid., p. 327.

<sup>15</sup> Ibid., p. 326.

에,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계약과 같은 법적, 사회적 합의에 있어서도, 단순히 심리적 연속성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사라지게 된다면, 개인 사이의 약속부터 국가간 조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약속에 면책권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관계 R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도덕적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이다.

이처럼 관계 R을 도덕적 책임의 유일한 근거로 삼을 때, 우리의 직관과 충돌할 수 있음을 영화 『미키17』의 사례(미키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의 배경이 되는 영화 『미키17』의 설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영화는 2054년의 미래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주인공 미키는 익스펜더블(expendable)이라는 직업으로 행성 이주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익스펜더블이란 일반적인 인간이 수행하기에는 위험한 일에 투입되는 존재로, 회복 불가능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시, 휴먼 프린팅 기술을 통해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다시 임무에 투입되는 일종의 소모품에 가까운 존재이다. 휴먼 프린팅은 영화 내에 존재하는 가상의 기술로, 정제된 유기물을 새롭게 조직하여 인간의 신체를 재출력(reprinting)하는 기술이다. 재출력은 저장된 신체 정보를 기반으로 신체 정보가 저장될 당시의 신체 상태와 똑같이, 머리부터 발 끝까지 그대로 복제해 낸다. 다만, 기억과 같은 심리적 특성은 외부 저장 장치에 따로 저장되어 있으며, 미키의 뇌와 동기화되어서 과거의 기억뿐만 아니라 사망하기 직전까지의 새로운 심리적 특성들 또한 포함해서 새로운 신체, 곧 재출력 된 신체에 이식한다. 이렇게 재출력이 완성된 존재에는 앞선 존재에 붙였던 숫자에 1을 더하여 이름을 부여한다. 미키 1이 사망하고 새롭게 출력된 미키는 미키 2가 되는 것이고, 미키 2 다음엔 미키 3, 그 다음엔 미키 4가 되는 방식이다.

여기서 파핏의 관계 R을 적용한다면 미키와 후속 미키들(미키 2, 미키 3, 미키 4...)은 동일한 존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미키의 뇌가 외부 저장 장치와 동기화 되어 있다는 것은 심리적 연결성을 구성하는 기억, 성격, 신념 등의 심리적 특성들이 어떠한 왜곡 없이 고스란히 저장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심리적 특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후속 미키는 앞선 미키들, 특히 직전의 미키와 강한 심리적 연결성을 지닌다. 파핏에게 “강한 심리적 연결성을 지닌다는 것”은 관계 R의 정도가 강함을 의미하며, 관계 R이 강하다는 것은 이 존재가 생존했음을, 다시 말해 동일한 존재로 여길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파핏은 매우 강한 관계 R을 지닌 미키들이 서로 동일한 존재라고 여길 것이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미키 사례를 살펴해보도록 하자. 다음은 영화 『미키17』의 배경을 기반으로 필자가 만들어낸 미키 사례의 내용이다.

\*\*

미키 16은 쓰레기 소각장에서 주민 A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그를 살해하고 도망치다가 절벽에 떨어져서 사망한다. 이후, 미키 16의 신체는 소각되고, 그가 죽기 직전까지의 모든 기억과 심리 상태를 완벽하게 백업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키 17이 재출력되었다. 미키 17은 자신이 여전히 미키 16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그는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재판에 회부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팿은 개인의 동일성을 영혼이나 신체와 같은 불변의 실체가 아닌, 심리적 상태의 연속성으로 설명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 동일성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를 잇는 기억, 신념, 성격과 같은 심리적 특성이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기 동일성은 “전부 아니면 전무”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연결성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정도의 문제”이다.

이러한 파팿의 이론을 미키 사례에 적용해 볼 수 있다. 미키 17은 미키 16의 모든 기억과 심리적 특성을 완벽하게 이식받은 존재이다. 이는 둘 사이에 거의 최대치에 가까운 심리적 연속성과 연결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파팿의 이론에 따르면, 이처럼 강력한 심리적 연결은 개인의 동일성이 상당 부분 이전되었음을 뜻한다. 그리고 개인의 동일성이 도덕적 책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동일성의 이전은 곧 도덕적 책임의 이전으로 이어진다. 즉, 두 존재 사이의 심리적 연결성이 강할수록 한 존재가 다른 존재의 행위에 대해 저야 할 도덕적 책임의 정도 또한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책임에 대해 파팿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떤 사람의 마땅한 책임(deserts)이 범죄자에 대한 공모의 정도에 상응하듯이, 과거의 어떤 범죄에 대한 현재의 그의 마땅한 책임은 현재의 자신과 그 범죄를 저지를 당시의 자신 사이의 심리적 연결성의 정도에 상응한다.”<sup>16</sup>

따라서 파팿의 관점에서 볼 때 미키 17은 미키 16과 거의 동일한 인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미키 16이 저지른 죄에 대한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위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논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전제 1: 파팿의 이론에 따르면 자기 동일성은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닌, 심리적 연결성과 연속성의 강도에 따른 “정도의 문제”이다.

전제 2: 두 존재 사이에 신뢰할 만한 원인(reliable cause)으로 인해 심리적 연결성과 연속성이 발생했다면, 이는 도덕적 책임이 공유되는 근거가 된다.

전제 3: 미키 17은 미키 16의 기억과 심리적 요소를 완벽하게 이식받았으므로, 둘 사이의 심리적 연결성은 거의 최대치에 가깝다.

결론: 따라서 미키 17은 미키 16의 범죄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강하게 공유한다.

하지만 미키 16의 신체는 명백히 사망했고, 미키 17은 다른 신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심리적 요인이 강하게 연속된다는 이유만으로, 미키 16과 전혀 다른 물리적 실체인 미키 17에게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의 대상이 행위의 주체와 동일해야 한다는 우리의 일반적인 직관에 반한다.

---

<sup>16</sup> Ibid., p. 326.

비록 미키 17이 자신은 여전히 미키 16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미키 16과 미키 17은 엄연히 다른 물리적 실체이다.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위, 주민 A를 살해한 행위의 물리적 주체는 미키 16이며, 미키 17이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신체 정보를 기반으로 재출력 되었다고 하더라도 미키 16과는 물리적으로 다른 존재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처벌이란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심리적 특성이 연결된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독립된 존재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물리 법칙을 벗어나 심리적인 영역에서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지 않는 이상, 완벽하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이처럼 파핏의 관계 R만을 기준 삼아서 도덕적 책임을 평가하는 것은 물리적 비동일성이나 이중 처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추가적인 이론, 또는 이론의 보완이 필요하다.

## VII. 결론

지금까지 파핏의 관계 R 이론을 통해 영화 『미키 17』의 설정에서 제기되는 자기 동일성과 도덕적 책임의 문제를 탐구하였다. 파핏은 뇌 분리 사고 실험을 통해 엄격한 수적 동일성은 생존의 핵심이 아니며, 정말 중요한 것은 기억, 성격 등 심리적 상태들의 인과적 연결망인 “심리적 연결성”과 이것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심리적 연속성”, 즉 관계 R이라고 주장했다.

파핏은 관계 R을 도덕적 영역에 적용하여, 러시아 귀족 사례를 통해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 사이에 심리적 연결성이 약화되면 약속과 같은 도덕적 책임 또한 감소한다고 보았다. 이는 개인의 정체성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므로, 자기 중심적인 윤리에서 벗어나 더 포용력이 넓은 관점을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러한 파핏의 주장이 도덕적 책임의 근거로서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본고의 핵심 주장은, 파핏의 관계 R은 행위의 물리적 주체 문제를 간과하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논증하기 위해 미키 사례를 제시했다. 미키 16이 살인을 저지르고 사망한 후, 그의 모든 심리적 상태를 완벽하게 이어받은 미키 17이 재출력된 상황을 가정했다. 파핏의 이론에 따르면, 두 존재 사이에는 최대치의 심리적 연결성이 존재하므로 미키 17은 미키 16의 살인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이는 살인을 저지른 물리적 신체(미키 16)와 처벌받는 물리적 신체(미키 17)가 다르다는 명백한 사실과 충돌한다. 이는 행위의 주체와 책임의 주체가 동일해야 한다는 우리의 근본적인 직관에 위배되며, 이중 처벌과 같은 법리적 문제도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심리적 연속성만으로는 도덕적 책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행위의 기반이 되는 물리적 동일성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한다. 파핏의 관계 R은 인격 동일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지만, 이를 도덕적 책임의 유일한 잣대로 삼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만약, 파핏의 관계 R 이론을 보완하여 미키 사례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인공지능 및 마인드 업로딩(mind-uploading)처럼 물리적 실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책임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논의가 과학 기술의 발달과 진보에 따라 기존의 이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하게 될 미래 세대에게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본 논문을 마무리한다.

## 인터넷 참고 자료

Ciavaglia, Jo. "For Brain Surgery Patient, Greatest Challenge Is Motherhood." AP News. May 18, 2019.

<https://apnews.com/general-news-d81263a495714dce90c15f1a13d9dafd>.

Sutton, Zach. "The Act of Giving - Working w/ The HeART Project & Karley Miller." Zach Sutton Photography. Last modified May 23, 2016.

<https://zsuttonphoto.com/working-heart-project-karley-miller/>.

Wheat, Alynda. "Woman Who Had Half Her Brain Removed Defies the Odds, Gets a Master's Degree." People Magazine. February 16, 2016.

<https://people.com/celebrity/woman-who-had-half-her-brain-removed-defies-the-odds-gets-a-masters-degree/>.

Yahoo News Australia. "Brave teen risks life with operation to remove half her brain in hope it will end daily seizures." Last modified February 7, 2016.

<https://au.news.yahoo.com/brave-teen-risks-life-operation-210913130.html>.

## 참고문헌

Parfit, Derek. "Personal Identity." *The Philosophical Review* 80, no. 1 (1971): 3-27.

Parfit, Derek. *Reasons and Persons*. Oxford: Clarendon Press, 1984.